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전 동 메 아 리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흄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 비 자 교 리 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6,35)



△ 그림 :www.jesus.de

◎제1독서: 탈출기 16,2-4. 12-15

◎제2독서: 에페소서 4, 17.20-24

◎복음: 요한 6,24-35

◎화답송: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98대 2”

1. 인류와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의 유전자 염기 서열과 인류의 차이는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채 2%도 되지 않는 미세한 차이로 우리는 침팬지가 아닌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98% 이상의 동물성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압니다. 또한 채 2%도 되지 않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미한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도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人心唯危, 道心唯微. 『書經』)” 고 하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인심이 98% 이상의 동물과 다름없는 마음씀이라면, 은미한 도심은 채 2%도 되지 않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마음씀입니다.

2. 먹어야 살 수 있기에 백성에게는 먹는 것이 하늘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던 것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잘먹고 잘살게만 해 준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면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도 모두 인간들에게 있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산다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거부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히 물리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배고픔 가운데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고,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 했을 때, 그들을 피해 외딴 곳으로 떠나셨던 것도 사실 인간이 동물이 되지 않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3.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품속에 간직했다는 『논어』의 말씀, ‘견리사의(見利思義)’ 역시 인간다운 인간,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기 위한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득(먹을 것)을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취하는 것은 동물이지만, 마땅함과 의로움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에페소 4,22-23)” 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인간을 신적인 존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빵(세속적 이득을 쫓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빵(사랑과 진리) 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하나님의 모상성을 지닌 신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줍니다.

지혜문학: 삶의 지혜를 전해 주는 성경의 책들
⑧(지혜서)

기원전 1세기 중반에서 기원전 3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지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저술된 책입니다. 집회서와 마찬가지로 지혜서 역시 이방인들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의 대상이었습니다.

집회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지혜서 저자 역시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조상들의 신앙에 충실했으며 이 신앙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가르침과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혜 2,3)

지혜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악을 피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고하는데, 인간이 불멸을 위해 만들어졌고 지혜를 통해 그 불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불멸”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지혜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그 근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 1,27)는 말씀에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새겨진 하느님의 모습이 인간이 불멸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은 ‘생명’을 지향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생명과 불멸의 원천이십니다. 반대로 죽음의 원천은 하느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악한 행위입니다. 불멸은 창조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새겨졌지만, 죄를 통해 악을 자신 안에 끌어들이는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마음에 머무르는 거룩한 영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이 열려있을 때, 또 우리가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려 할 때, 불멸을 얻는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것이 지혜서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 교우님들 모두 우리를 세상에 초대하신 하느님의 지혜를 헤아리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지혜문학 시리즈를 모두 마칩니다.

제41대 사목회장을 추천받습니다!

문정성당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판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24/토~ 7/25/주일)

1. 본당 제40대 사목회 임기가 올해 10월로 종료됨에 따라, 본당 사목회 규칙 제5조 1항(주임사제가 임명)과 2항(신자들의견청취)에 따라 **신심깊고 덕망있는 사목회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2. **목적:** 본당 신자들에게 사목회장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본당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3. **참여방법:** 8월 한 달간 대성전입구 추천함에 추천용지를 작성한 후 투입한다.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자](7/16~7/29)

김관식울리오	박미애레지나	이승환스테파노	이철수바로로	장정희루시아
김숙희세실리아	원수관야고보	이종두헨리코	이현명사도요한	정인덕가브리엘
김해련세실리아	육순자데레사	이지현헤레나	익 명	조영순마리아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로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한) 김호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남문문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 쿡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다들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 010-3659-1907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 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 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1. 8/8(주일)까지 성당 좌석수의 20%인 100명까지 미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단, 백신접종자는 입장제한 인원에서 제외)
2. 단체 모임이나 회합, 예비신자 교리반은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합니다.

◎ 오늘은 제대 꽃 봉헌의 날입니다.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8/5(목)10:00 성시가는 없습니다.

■ 세례예정자 종합교리 및 면담 안내

*일시: 8/8(주일)교중미사 전후, 권상연관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8월로 예정되었던 초중고등부 여름신앙학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잠정 연기합니다.

■ 2022년도 혼인미사 예약접수: 타 본당교우 포함 선착순 접수중이오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무지개장학재단 2021년도 하반기 장학사업 안내

*지원대상: 전북지역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부모

가정의 자녀 *신청기간:8/6(금)까지

*접수: 전주교구청 사회사무국(063-230-1074)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히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7월30일 현재)	587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7월 19일~7월 25일)

주일헌금:	3,440,500	교무금:	3,101,000
감사헌금	이경춘(마르첼리노)	100,000	
	익 명	100,000	
	박영자(헤레나)	100,000	
	조영순(마리아)	2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 창 당 한 약 방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철모) 이성숙(안필라) 전동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영(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뚜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상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휘(안 드 레 아) 진버들6길8-10(아츨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동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